



결핵인물열전 ③

늘 한발 앞서간 결핵학자 김경식(金敬植)

김대규 / 대한결핵협회 고문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외골수로 결핵연구와 환자진료에만 일생을 바친 한 시대의 걸출한 결핵학자. 화학요법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은 그의 창의적 실험정신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8·15광복이후 서울대의대 호흡기내과를 이끌면서 1976년 정년 때까지 명실공히 우리나라 결핵과 호흡기계의 거목으로서 오로지 연구와 진료의 후진양성에 평생을 바친 김경식.

그는 1911년 2월 16일 평안북도 용강군 대대면 덕동리(龍岡郡 大代面 德同里) 391번지에서 지주 김면주(金冕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평양의 사립 명문인 광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들어감으로서 의학과 의만남이 이루어진다. 광성고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한 셔우드 홀(Sherwood Hall)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이 평양에 처음으로 기독교와 서양의학을 전하면서 1894년에 세운 학교다.

김경식은 1937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자 곧바로 내과학교실에 들어가 당시 유능한 내과의로 명성이 높았던 이 와이(岩井)교수 문하생이 되었다. 1940년부터 2년간은 병리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계속 내과학 교실의 조수와 강사로 근무하던중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곧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에는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52년부터 59년까지 내과학 교실의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1979년 2월 29일 정년까지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후진양성에 온갖 정성을 쏟았으며 1963년에는 서울대학교 결핵연구소장을 겸하기도 했다. 정년 후에는 명예교수로 추대되어 계속 학문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는 한편 종로구 관훈동 72번지 자택 한옥에 김경식 내과의원을 개원하여 결핵환자 진료에

마지막 정성을 쏟았다.

가식을 모르는 소박한 인품과 결코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학자로서의 길을 깨끗하게 살다 간 김정식은 연구에 있어서 그 창의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특히 결핵의 화학요법에 관한 연구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었고 남들보다 늘 한 발 앞서 있었다.

한 때 결핵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된 신약이 국내에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결핵약은 무엇이든지 직접 복용해 본 후에야 환자들에게 권하던 그는 국내 생산품의 맛이 이상하다면서 약대 교수들과 협력하여 직접 그 약을 합성하고 결정화(結晶化)해서 그 약이 불순물이 많은 비양심적인 제품임을 밝혀 내어 결핵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았다.

또 1957년 경 아이나가 기억력에 지장을 주는 듯하다면서 관련 문헌을 찾아 보았으나 아무 데도 그러한 기술이 없자 직접 생리학적 정신과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분명 차이가 있음을 밝혀 냈다. 그 후 1959년 스웨덴에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6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아이나가 기억력을 감퇴시킨다는 학설이 공인되었다.

최신문헌 읽기 위해 불어공부

그는 무뚝뚝하고 말투가 세련되지 않아서 때로는 환자의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지시대로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는

가차없이 질타를 했다. 결핵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간호원을 고용하여 차트를 정리하고 중도 탈락자에게는 편지를 보내거나 방문케 하여 치료를 계속하도록 지도했다.

보건소의 결핵관리에 있어 치료중단자를 예방하는 것이 첫째 과제였음을 상기할 때 그가 대학에서 사비로 그 일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또한 진료시간이 길어 지더라도 약을 중단하지 않고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환자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보건교육에 철저했던 것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의 학구열은 대단한 것이어서 우선 최신 구미의학정보에 접하기 위한 어학 공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 시 의학공부는 독일어 위주였으므로 광복 후 새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신 미국 교과서를 주로 인용해서 강의를 했다. 한국전쟁 피난 시절 「타임」지의 의학관계 기사가 상당히 정확하며 매주 「타임」지를 구독했으며 우리나라에 TV방송이 없을 때 영어 히어링을 익히기 위해 TV를 구입하여 미군방송을 시청하는 열성파였다. 그래서 1959년부터 2년간 미네소타대학에 유학 갔을 때 의학적 토론이나 강의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60년대 후반 이후에 프랑스에서 결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여 결핵신약 개발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 무렵 60세 가까운 나이에 프랑스의 결핵 문헌을 직접 읽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외국어학원 조조반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자나 동료들은 새벽 산책하는 것 짬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정년 퇴임 후에도 매주 호흡기 질환 집담회에 빠짐없이 참석, 토론회에 직접 참여했으며 본과 2학년 학생을 위한 화학요법 강의는 작고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결강하는 일이 없었다.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다보니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그였다. 특히 복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공식석상이 아니면 넥타이를 거의 매지 않았으며 광복 후 독신이었을 때에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기 일쑤였는데 그 때 짝짝이 양말로 유명하기까지 했다.

실용적인 보자기 철학

김경식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적은 노트를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들은 언제나 보자기에 싸서 끼고 다녔다. 환자들 중에는 보자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가죽 가방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집에 쌓아 둔 채 한결같이 보자기만 사용하였다. 보자기를 애용하는 그의 변은 과연 그의 실용주의적 사고와 가식없는 인간미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첫째, 내용물의 부피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둘째, 가벼워서 부담이 없고 셋째, 물건을 쌀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되니 참 편리하다는 그의 보자기 철학은 만인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스트렙토마이신 단독 사용으로 결핵균의 내성이 생기는 것을 체험한 김경식은 서울수복 후 6·25전쟁으로 황폐한 대학병원에서 재빨리 손수 결핵균배양과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사 결과와 임상과정을 비교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관심은 폐결핵의 화학요법에 집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새로운 결핵약이 계속 발표될 때였는데 신약이 나오면 사용법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의견을 내놓았고 또 직접 이를 실증하였다.

아이나 대량요법과 그 뒤의 감량요법은 그가 일찍 독자적으로 주장했지만 병용요법에 있어 세 가지 약 중 두 가지만 써도 세 가지 병용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즉 증세가 가벼운 환자에게는 합당하나 중환자에게는 다제병용(多劑併用)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 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재평가함으로써 공인이 되어 그의 선견지명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1975년 12월 5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경식 박사, 좌측 바로 뒤 안경순 이가 한용철 박사

결핵관리 시범 실시

김경식은 1953년 11월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초대 학술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55년부터 61년 사이 2회에 걸쳐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64년까지는 서울지부장을 맡았는데 서울지부장 재임중 부속의원의 진료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1962년 5월 광화문 의사빌딩(현 고보자리)내에 분원을 개설하고 내과교실의 민덕성(閔德成)을 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종로구 관훈동을 결핵관리 시범 지구로 지정하고 1962년 10월부터 63년 9월까지 1년간 결핵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천 500명의 주민을 상대로 실태조사, 발견된 환자의 등록 치료, 가정방문, 소아감염의 예방등 결핵관리모델 개발에 힘쓰기도 했다.

그는 결핵의 역학조사와 시범관리까지 실시하는 등 결핵퇴치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타협을 모르는 학자적 기질때문에 1964년 이후로는 일체 결핵협회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1971년 회갑을 맞이했을 때 문학생들이 기념논문집 발간을 추진했으나 동기생들과 회갑은 않기로 약속했다며 한사코 사양하여 회갑논문집 하나 남기지 않은채 1982년 5월 5일 그가 평생 몸담았던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71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의 논문집은 10주기 때 문학생들에 의하여 그의 영전에 봉정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인수(李寅壽)여사와 마취과 전문의인 딸 동희(東姬)가 있다. 후